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 수확철 릴레이 일손돕기

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 직원들이 수확철을 맞아 일손돕기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퇴직연금부 직원들이 농협은행 안산시지부 직원, 안산대학교 학생들과 경기 안산시 장하동 소재 농가를 방문해 토마토 집게 제거 작업 등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대교, '키즈뱅크 플랫폼 구축' 맞손

신한은행이 대교와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키즈뱅크(Kids Bank)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관악구 소재 대교타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오른쪽)과 대교 강호준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켄싱턴리조트 지리산남원, 지역 취약층 외식 지원

켄싱턴리조트 지리산남원과 남원시는 지난 12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공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켄싱턴리조트 지리산남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생활이 한층 위축된 취약계층에게 가족단위 외식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성민 켄싱턴리조트 지리산남원 총지배인(왼쪽)과 이환주 남원시장이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

인사

◆한국전력공사 ◇본부장 △영업본부장 박상서 ◇본사처(실)장 △기획처장 정재천 △경영혁신처장 김건중 △재무처장 심광섭 △탄소중립전략처장 이창열 △커뮤니케이션처장 박창률 △안전보건처장 김준오 △정보보안실장 양용준 △스마트미터링처장 이영섭 △기술기획처장 김태균 △기술품질처장 김종필 △디지털변환처장 송호승 △ICT기획처장 김용호 △영업처장 이정호 △수요관리처장 김종민 △배전계획처장 정치교 △영배정보구축실장 박종운 △계통계획처장 이철휴 △송변전건설처장 서철수 △신송전사업처장 황인목 △재생e대책실장 곽은섭 △해외사업기획처장 김상문 △해외발전기술처장 박희영 ◇1차 사업소장 △남서울본부장 최병운 △경기북부본부장 박주수 △경기본부장 이건행 △충북본부장 김영관 △대전세종충남본부장 김태용 △전북본부장 김영환 △대구본부장 박무흥 △경남본부장 조남기 △제주본부장 김세경 △경영지원처장 정희문 △사옥건설처장 유재용 △전력연구원장 이중호 △ICT운영처장 이영구 △설비진단처장 조재형

부음

▲최남구씨 별세, 최미란(제시카어학원장)·미경(문화일보 광고국 과장)·미선씨 부친상, 이관주(LG전자 책임)·이규영(시스템 글라스 대표)·김범종(청호나이스 팀장)씨 장인상 =14일 김제우석병원 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9시30분. (063)543-4484

▲김초옥씨 별세, 신치수(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운영팀 대리)씨 조모상 = 14일, 성심장례식장 VIP 3빈소, 발인 16일 오전 7시. (042)522-4494.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김 다 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의 경우 제3자에 대해도 효력이 있다(상법 제190조 본문, 제380조).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했다면 어떤 형태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는가?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승패를 같이할 필요가 없는 '통상공동소송'과 승패를 같이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소송에서도 각 당사자는 자기 책임 하에 각자 소송을 수행하고 다른 공동소송인으로부터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이 행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민사소송법 제66조는 이러한 통상공동소송이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임을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할 공동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고, 공동소송인 간에 재판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심리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면,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자료가 통일되고 소송 진행도 통일돼 공동소송인 간 재판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된다. 반면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 중 어느 하나만 통일되지 않아도 재판결과의 합일확정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경우를 '편면적 대세효'라고 한다.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통상공동소송인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은 통상공동소송으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이 있었다. 별개의견에 따르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실체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세효 규정에 따라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통일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다른 수단은 불필요하고,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는 것이 실체법상 법률관계 통일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간에 판결 결과가 달라도 그 효력이 서로 충돌할 여지가 없어 판결의 모순·저촉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면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소송경제에도 반할 수 있다. 나아가 별개의견은 상법상 전속관할 및 병합심리 규정이 병합된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별개의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이같은 내용의 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제주개발公,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확대 운영

수협 세곳과 다자간 업무협약
제주 전역 프로젝트 범위 확대

제주개발공사와 수협 임직원들이 한림 지역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가 제주의 청정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프로젝트'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한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프로젝트'의 확대 운영을 위해 제주 지역 수협 세 곳과 추가로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의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프로젝트'는 수거사각지대에 놓인 제주도 근해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선들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바다에서 조업 중 선원들이 마신 생수의 페트병 등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모아 수협에 제공하면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보상해준다. 적절한 보상을 통해 어민들의 폐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거된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 섬유로 만들어 순환 경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다자 협약을 통해 투명페트병 수거, 보상 지역이 서귀포항 한 곳에서 한림항, 모슬포항, 성산포항 등 네 곳으로 늘어나 더 많은 어선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개발공사는 사업의 전체 기획 및 보상 금액을 마련하고, 각 수협과 제주해양경찰청은 더 많은 선주, 선원들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NH저축은행

디지털 농업 발전 4000만원 지원금

NH저축은행은 지난 12일 농협재단과 '디지털 농업 관련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농업인 지원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NH저축은행은 매년 '농촌사랑 정기예금' 상품 판매를 통해 판매금액의 0.1%를 농업인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적립된 기금은 농업, 농촌, 농민의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농협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농업의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농업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권소완 기자 think@

시멘트업계, 지역상생 위한 '강릉기금관리위' 출범

옥계공장 인근 지역사회 지원

한라시멘트가 주축이 돼 만든 '강릉기금관리위원회' 출범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멘트협회

시멘트업계가 지역 사회와 상생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14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 11일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에서 인근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강릉기금관리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시멘트업계는 지난 2월 시멘트 생산공장이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총 250억원 규모의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강릉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협약의 일환으로 강릉시 옥계면에 공장을 둔 한라시멘트가 주축이 돼 설립했다. 위원회는 생산공장이 위치한 강릉·옥계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기금 조성과 운영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한라시멘트는 기존에 진행해 오던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면서 위원회를 통해 지역과의 소통 강화 및 경제 활성화, 지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성신여대

청년예술창업가 지원 아트창업전시회 개최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은 군집창업 '아트창업 빌리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트창업 박람회'전을 미아 운정그린캠퍼스(B동 지하 1층 로비)에서 12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성신여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청년 예술가 창업지원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성신여대가 함께 운영한다.

'아트창업 박람회'는 청년 예술창업가 30팀의 창업 아이템과 지난 3년간 (2019년~2021년)의 활동을 선보이는 전시회다. /이현진 기자 lhj@